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소식지

vol. 02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독서교육전공

1. 독서교육전공 동문 세미나

2025.9.6.(토)

독서교육전공 27기,
독서교육 17대 동문회장 이지영

주제 텍스트 너머를 읽다

교육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더욱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서교육의 본질을 되짚으며 그 의미의 지평을 넓혀 가보고자 김종신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강연을 시작으로 동문 선생님들의 현장 실천의 경험을 생생한 나눔까지,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진 이번 동문 세미나는 서로의 경험과 교민을 나누며 한층 더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까지 갖는 뜻깊은 자리였다.

2. 독서교육전공 여름 세미나

2025.7.5.(토)

독서교육전공 42기 오미아

주제 독서 과정과 독서 토론의 방법

2025년 여름, 독서교육전공은 국립경국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을 모시고 <독서 과정과 독서 토론의 방법> 을 주제로 전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문 특강을 함께 기획하였다. 독서교육전공 4기 졸업생 김현애 동문을 초청해 <모두를 위한 독서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독서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내며,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3. 독서교육전공 리터러시실천협회 발대식 및 보수교육

2026.2.7.(토)

독서교육전공 43기 이안나

주제 연구와 실천이 만나는
리터러시 공동체

리터러시실천협회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협회는 가톨릭대학교 일반·교육대학원 독서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 그리고 학교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리터러시 실천가들이 모여 연구와 현장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2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을 증정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창희 교수의 <AI 시대 리터러시와 독서교육> 강의와 오선경 동문의 <독서 전문가 비전 설정 및 네트워킹 파티> 워크숍이 보수교육으로 진행되어, 의미 있는 학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협회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독서교육전공

4. 독서교육전공 겨울 세미나

2026.2.7.(토)

독서교육전공 43기 김지영

주제 논문 글쓰기 특강

지난 겨울, 가톨릭대 독서교육전공은 논문 작성 방법을 큰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여름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도 동문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였다. 서문 작성은 이현아 교수, 이론적 배경 작성은 정인숙 교수, 결론 작성은 오희영 동문이 강연을 맡아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논문 작성을 계획 중인 재학생들이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눈에 담는 동시에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정리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강연자들이 먼저 논문을 작성한 선배로서 주는 허심탄회한 조언을 통해 재학생들이 논문 작성을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5. 졸업생 후기

독서교육전공 40기 안용민
(2025년 8월 졸업)



Q 가톨릭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책을 매개로 교육해왔지만,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공허함이 컸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아닌, 진짜 배움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Q 5학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삶과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내 안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와 실천을 연결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논문이 현장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경험하며, 연구자로서의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Q 어떤 주제로 연구하셨나요?

수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인의 주관적 웰빙 함양을 위한 시그림책 창작 운영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연구는 논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작품은 책으로 엮여 전시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 상담교육전공

1.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수련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

2025년 12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수련 준비를 위한 겨울방학 특강이 2차례 진행되었다. 13일에는 박유미 선생님(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이 수련 준비 과정을 안내하였고, 17일에는 김지은 교수님(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객원교수)이 사례개념화 강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상담교육전공은 상담심리사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 첫 공개사례발표 시작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2월 21일, 상담교육전공에서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총 3명의 재학생이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강수정 주임교수와 함께 기업상담 및 대학상담 경력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이 참여하여 수퍼비전을 제공하였다.



3. 교육대학원 수련상담실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신청

교육대학원 수련상담실에서는 인근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신청을 받고 있다. 상담자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수련을 준비하는 재학생으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며 상담자 윤리를 준수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신청 문의: couneducuk@gmail.com).

» 유아교육전공

1. 교육대학원, 유아 교육기관 3곳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대학원은 2025년 11월 26일, 진명유치원, 랄랄라꼬마숲어린이집, 두산다운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 3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협력기관 현판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원과 교육 현장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및 실습 협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유아교육 전공 재학생과 동문이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현장과 연결된 교육·연구 환경과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는 보다 생생한 현장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로진학상담전공

1. 2026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합격자 21명 배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에서 2026학년도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총 21명이 합격했다.

이번 성과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전공 구성원들이 축적해 온 교육과정과 학습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학 기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며 진로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온 점이 합격으로 이어진 것이다.

합격자들은 다양한 사례 기반 수업과 실습,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담 역량을 갖추어 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임용시험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진학상담전공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6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합격을 축하합니다 (총 21명)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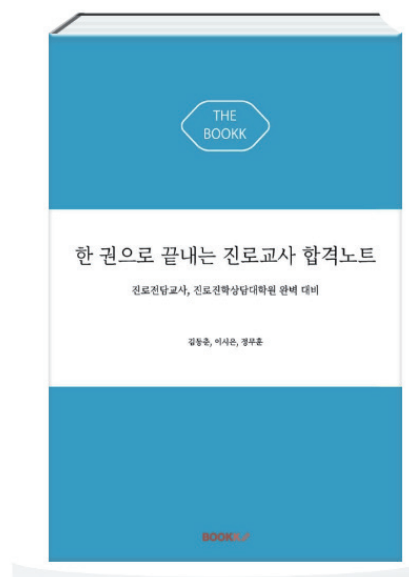
[예비 진로교사 추천도서 안내]

한 권으로 끝내는 진로교사
합격노트

가톨릭대학교 진로진학상담전공을 졸업하시고 진로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동춘, 이시은, 정무훈 선생님이 [한 권으로 끝내는 진로교사 합격노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진로교사 시험 준비를 위한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스터디 교재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로상담 대학원 준비
- 진로교사 1차, 2차 준비 방법
- 2차 면접 기출문제 분석
- 2차 면접 예상문제 모범답안
- 2026년 교육청 필수 공문



» 평생교육전공

1. 재학생 수기

평생교육전공 2학기차 **조해니**

삶 속에서 계속되는 배움

시민교육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들으며, 교육은 개인을 넘어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성인들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이러한 배움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특정한 배경에 한정되지 않고, 각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수업들은 평생교육이 지닌 폭넓은 시야와 실천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평생교육전공 4학기차 **윤선정**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 졸업을 한 학기만 앞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시원섭섭합니다.

이제는, 전공수업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분야로 나아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 수업에서 수행한 과제를 통해 특히 노인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 그들의 삶을 위한 학습 지원체계 등 깊은 고민을 이어가며 평생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학습을 통한 변화를 실제로 마주하기도 했는데, 전공 전문 지식이 더해지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삶이 연관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보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서로가 함께 모여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 동문 수기

이서영 (2021년 8월 졸업)

저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던 5년 동안 매일 학습자들의 삶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격려하며 같이 성장했던 감동의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평생교육사의 무수히 많은 역할을 기억하며 저의 삶을 돌아켜보니 특히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었음을 공감합니다.

학습자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이루는 순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라는 곳은 지역과 사회 구성원의 열린 학습장으로 역할을 해내는 만큼, 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과정 개발과 연구, 교수자의 역량 강화,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를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겁니다.

우리 전공의 동기 여러분들도 대학을 비롯하여 학습자를 위해 살아있는 평생교육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 한국어교육전공

1. 동문 수기

정효민 (2008년 8월 졸업)

1. 현재 하고 있는 일 소개

현재 대학교에서 몽골, 네팔,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법, 한국어교육 개론 등 한국어교육 이론 과목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2. 대학원 진학이 나의 인생에 미친 영향

대학원 진학은 나의 삶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졸업 후 전공과의 연계 및 성과/근황 소개

교육대학원 졸업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201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며 약 10년간의 경력 단절을 겪었으나, 학교의 배려와 저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한국어 교육 현장에 복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보람과 더불어 학문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교수님

“좋은 논문을 골라 전부 필사해라. 박사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늘 자신감이 부족했던 저에게 학문적 용기와 방향을 일깨워 주신 이지양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5.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5년 후, 10년 후의 나를 믿으며 지금의 현실과 한계를 헤쳐 나가십시오.

언젠가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잘 해냈다”고.

